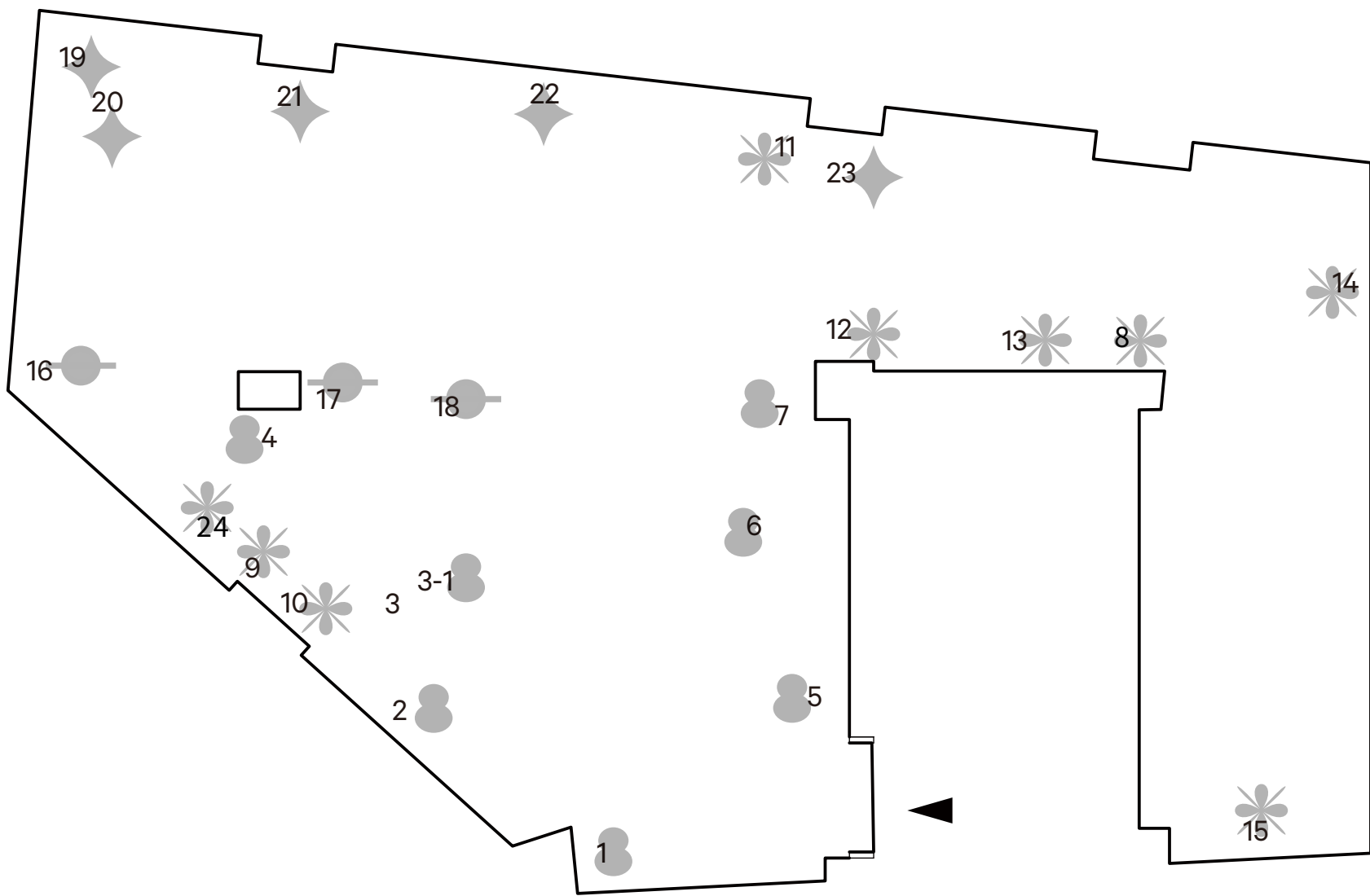




1. <우는 절 거북 Crying Temple Turtle>, 도자, 수중펌프, 24×24×11cm, 2022
2. <녹지 않는 눈사람 시계, The Time Doesn't Erase>, 18×18×3cm, 유리, 시계 무브먼트, 색모래, 2022
3. 3-1<비둘기 Pigeon>, 유리, UV레진, 30×24×4cm, 2023
3-2<팔 다리가 긴 사람 Untitled>, 유리, 17.5×10×21cm, 2023
4. <클리오네 마리모 어항 Misty Bowl>, 11×12.5×11, 유리, 2023
5. <마고 여신 Goddess Mago>, 30×31×28cm, PLA, 2023
6. <Bluepet338>, 가변크기, 새틴, 솜, 실, 2022
7. <사람 모양 핀쿠션 Human>, 23×28×3×, 면, 솜, 실, 2022
8. <죽은 물고기 Dead Fish>, 9.5×5.5×3cm, 유리, 2022
9. <FEEET>, 유리, 천 30×18×10cm, 2022
10. <나도 발기도>, 석판화 35×50.2cm, 2022
11. <Left thing: soluble teeth>, 비누, 5×5×9cm, 2023
12. <Profile> 붕어빵, 인공잔디, 레진 18×12×3cm, 2021
13. <First aid kit: for self harm>, 유리, 레진, 칼, 천, 솜, 가변설치 2020-2023
14. <오직>, 현판에 구멍, 28×120×3cm, 2022
15. <SAD VIDEO> 싱글 채널 비디오 01:21, 2022
<DANCE VIDEO(파란 나라)> 싱글 채널 비디오 01:43, 2022
<BIRTHDAY VIDEO(2008.08.01)> 싱글 채널 비디오 01:42, 2022
16. <침울한 살>, 70×130×40mm, 스텐 잉크 내열 유리, 2022
17. <요변덕>, 45×25×190cm, 아연합금스틸내열, 2023
18. <늪양스>, 피스 가변 설치, 잉크 내열 유리, 2022~2023
19. <토닥이>, 85×45×40cm, 2017
20. <Veggie Love>, 128×182mm, 소책자, 2022
21. <Cell (세포 조각)>, 10×30×20cm, 패브릭 2022
22. <Hands hug (손목도리)>, 100cm, 2p, 패브릭 2021
<Broken pieces of body>, 혼합매체, 가변설치 2021
<서로 안아주며 자라나는 식물세포 해부도>, 15×5cm, 종이에 수채,
<Hugging Organ>, 15×10×2cm, 패브릭 2020~2022
<Form 뼈 조각 시리즈- 가슴과 골반뼈>, 패브릭, 2022
<Stream>, 가변크기 및 설치, 패브릭, 2023
<Camouflage leaf (변장용 나뭇잎)>, 가변 설치, 패브릭, 2022
<Plant heart 식물 심장>, 20×10×10cm, 패브릭, 2023
<Heart plant 심장 조각 나무>, 20×10×5cm, 패브릭, 2022
23. <Handshaker>, 18×20×15cm, 패브릭, 2022
24. <영생을 위한 콧물 참기>, 이정윤시집, 가제본, 탈출판사, 2023

- | | | | |
|---|-----|---|-----|
| ● | 박정은 | ◆ | 김성연 |
| ● | 김연진 | ✱ | 이정윤 |

유리 까는 사람들

2023.05.26(금)-06.08(목)

“꿈속에서 해변 위에서 그 사람은 깨어난다
여긴 어딜까
그 사람은 맨발이다
걸을 것이다
발에 아픈 유리 조각 수십
조각이
박혀 피가 흘러
애기 들은 적 있어
유독 특히 아름다운 해변만 골라 유리를 깔고 가는 남녀 이야기
공감할 수 없는 애기
어째서 여기 이 해변만 유독 특히 아름답나요?”

김승일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유리해변> 중 일부, 문학과 지성사, 2019

<Glass Pavers - 유리 까는 사람들>은 김성연, 김연진, 박정은, 이정윤 네 명의 작가로 구성된 그룹 전시이다. 김승일의 시 <유리해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깔린 모래사장이 등장한다. 시 속의 유리 까는 사람은 어째서 이 해변이 이토록 아름다운지 이해해보고자, 해변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스스로 날카로운 유리를 모래 속에 섞고, 맨발로 그 위를 거니는 고통스러운 행동을 반복한다.

<Glass Pavers - 유리 까는 사람들> 전시에 참여하는 4명의 작가는 자신들을 유리 까는 사람에 비유한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해변의 일부가 된 화자처럼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유리를 깔며 각자가 마주한 단절에 반응한다. 전시장에 흩뿌린 유리 조각들은 각자의 형태로 모래 속에서 반짝이며 스스로를 세상에 내보인다.

김성연은 소마틱스(Somatics)를 기반으로 식물적인 몸을 연구한다. ‘소마틱스’는 몸(soma)과 마음(mind)이 일치하고 통합된 상태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된 이분법적 사고와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식한 몸을 찾는다. 그는 이러한 소마틱스적 사고를 기반으로 세포 단위의 몸이라 부를 수 있는 페브릭 오브제를 만든다. 이들은 모두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관객들이 이러한 오브제들을 입는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체를 사용하고 공간을 이동하며 상호작용할 것을 제안한다. 작가는 구체적인 가이드북을 통해 앉거나 누운 자세로 호흡을 고르며 단절되었던 몸과 몸 간의 연결 가능성이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이정윤은 개인적 서사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괴롭다고 느끼던 상황을 장난치듯 뒤틀어 놓아 보인다. 그는 상황이나 이미지를 전복시켜 위상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개인이 직면한 단절의 경험을 시각화한다. 영상작업에서 트리거에 대한 연극적 반응으로 침례, 자살, 생일을 일련의 퍼포먼스로 수행하고, 자해충동을 참기 위한 임시방편의 오브제를 제작한다. 이처럼 작품이 시작된 배경과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의 괴리감 속에서 감추려던 정서는 오히려 부각되듯 느껴진다.

김연진은 내열유리로 만들어진 유기적인 형태의 오브제를 제작한다. 그는 유리가 상온에서는 고체지만 1,500℃를 기점으로 물렁해져 어떤 면에서는 액체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이처럼 불분명하고 모호한 경계에 있는 유리의 면모를 담아낸다. 뜨거운 온도를 품어내다가 비로소 흐트러지는 유리의 모습은 뒤틀리고 찰랑거린다. 빛나고 아름답지만 기괴한 형태를 한 그의 유리들은 생동력과 침울함을 동시에 뿜어내어 변동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박정은은 유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투영된 오브제를 만든다. 그는 유리가 물을 만지는 듯 부드럽지만 동시에 무게가 있고 견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투명하고 모호한 형태의 유리 오브제를 통해 흔히 표현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상적인 감정들을 감지하고 표현한다. 그의 오브제들은 미미하지만 동력을 품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분수의 우는 듯한 물소리, 시계 위 사랑을 적은 모래를 쓸어내는 작은 솔의 소리와 같은 오브제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리들은 마치 태아의 심장소리처럼 살아있음을 조그맣게 속삭이는듯 하다.

이들은 서로의 작업들이 겹쳐지는 형상을 통해 내면과 외부 사이에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고자 한다. 각자가 빚어낸 유리조각들은 인간의 존재에서 발생하는 모순적인 감정과 경험들을 온전히 인지해보고자 하는 과정이라 가늠해본다. 언어로 치환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자리에 펼쳐진 이들의 아름다운 해변을 맨발로 거닐어보기를 제안한다.